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Clarksons index hits highest level in over 12 years

ClarkSea Index 4월 평균 \$21,301/일, 5월 \$24,690/일로 컨테이너선, 벌크선 강세에 힘입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2008년 9월 \$28,737이후 최고치 기록함. 또, 평균 벌크선 운임도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Tanker splash: Evangelos Marinakis throws down \$216m on LNG-ready newbuildings

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 선주 Evangelos Marinakis와 6척의 MR탱커 건조에 대한 LOI(Letter of Intent)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해당 계약에는 2척의 옵션물량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LNG-ready선이라고 보도됨. 현대베트남조선이 건조하고 척 당 선가는 3,600만달러이며 확정물량의 인도기한은 2022~23년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 현대미포조선, P/C선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7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총 1,645억원 규모 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선박 인도기한은 2023년 3월 인도예정이라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 IMO, 2023년 EEXI-CII 등급제 도입, 해상 환경규제 강화

오는 10일 76차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기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표(CII) 등급제 도입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됨. CII 등급제는 선박 운항 효율 달성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한국 조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Growth of China's LNG imports may be stunted in June

중국의 LNG 수입량이 5월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6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5월 한달간 중국은 723만톤(+16.6% QoQ, +24.7% YoY)의 LNG를 수입했다고 보도됨. 6월 예상 수입량은 659만톤(-3.9%, QoQ)이라고 보도됨. (Upstream)

## 두산중공업,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에 기자재 공급한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기술과 100MW(메가와트)규모의 제주한림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두산중공업은 5.56MW급 해상풍력발전기 18기를 공급하며 계약금액은 1,900억원 정도로, 준공 이후 풍력발전기 장기유지보수 계약도 별도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